

광주보

발행인 장재민
편집인 이철
편집국장 우세철

대표전화 (323)692-2000
▶ 편집국 기사제보 (323)692-2020
FAX (323)692-2062
▶ 광고국 (323)692-2100 FAX (323)692-2111
▶ 사업국 (323)692-2067 FAX (323)692-2121
▶ 판매국 (독자부) (323)692-2121
FAX (323)692-2122
1-888-818-4542
4525 Wilshire Blvd.

“징용한인, 일본회사 배상요구” 한인변협 가세 국제 이슈화

“반인륜적 범죄, 유대인 커뮤니티와도 협력 모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제 징용에 동원됐던 한인들이 미국 법정에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남기주 한인변협사협의회(KABA)가 협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범주·고형식·신해원·준강재 등 한인 변호사들은 정몽준씨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처원을 넘어서 역사적 정의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에 대해 지행된 무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주 KABA 회장은 “강제 징용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KABA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징용 소송을 적극 도와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KABA 회원이 아닌 한인 변호사들은 물론 특히 유대인 커뮤니티 등 타인종 변호인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소송을 원하는 징용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연락을 희망했다.

KABA 관계자들은 “징용자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정재원(77)씨와 한국에 살고 있는 박성문씨의 가족

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면서 상담후 법률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일본회사들이 일부 변호인단을 앞세워 변호에 나설 것이 뻔한데다 이번 소송이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한·미·일간 정치 외교적 문제도 복합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행한 과거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한우성기자>

징용한인, 일본회사 제소

〈1면서 계속〉

남가주 한인 변호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윤영일 변호사가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징용자 최재식(73)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본철강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미류 유수의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이 집단소송에 합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징용자 출신으로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 법정에 소송을 많이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다만 최근 일본 법정도 약간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 지난



한인 변호사들이 징용자 집단소송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희식, 신혜원, 이법주(KABA 회장), 준 강 변호사.

해 9월 도쿄 고등재판소는 행정상 특별 배상조치를 취하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5월에는 오사가 고등재판소가 원고(재일 한국인)와 피고(일본 정부)간 화해를 권고한 일도 있

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 당시 일 본 군인·군속으로 징용됐던 재 일 한국인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액의 일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